

2018년 4월 7일 국가직 9급 총평 및 해설



지안에듀 안효선

現 지안에듀 국어 전임

現 빅모의고사 해설 위원

총평 자료실:

http://public.zianedu.com/front/TeacherViewBBS?mnk=120&parent_mnk=353&bbsmasterkey=10023

【총 평】

전체적으로 난도가 높아졌다. 문법의 경우 중세 문법(17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으며 선지도 세련되게 출제되었다. 어문 규정(1번) 문제와 띄어쓰기 문제는 매해 출제되고 있으며, 다른 문제들에 비해 비교적 쉽게 출제되었다. 또한 16번은 '반의 관계'의 유형을 알고 있어야 쉽게 풀 수 있었다는 데서 문법을 깊이 있게 학습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문학(작문 포함)의 경우, 난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지문의 길이도 길어졌으며 선지의 내용도 쉽지 않게 출제되었다. 또한 오류의 유형은 서울시(2018.3.24.)에 출제된 것과 같이, 최근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예문과 함께 꼼꼼하게 학습해야 한다. 문학은 대체로 유명한 작품이 출제되었으므로 평소 문학 학습을 꾸준히 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었다. 한자의 경우 이전보다 쉽게 출제되었지만, 한자의 적절성뿐만 아니라 뜻이 문맥에 적절한지 여부도 판단하여야 풀 수 있었다.

【정 답】

(다) 형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②	②	③	③	②	④	④	①	①	②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③	②	②	①	③	①	④	③	③	①

【문항 해설】

1.

[정답] ②

[해설] 로마자 표기법, 제3장 표기상의 유의점, 제2항에 관한 설명이다. ②의 ‘반구대’의 로마자 표기법을 붙여 쓸 경우 ‘Bangudae’로 ‘ng’가 ‘o’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다. 즉 ‘방우대’로 오해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붙임표를 쓰는 경우에 해당한다.

(출제 범위: 어문규정- 로마자 표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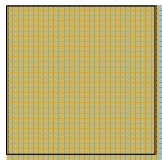
2.

[정답]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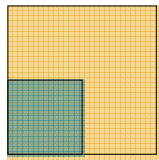
[해설] 지문에서 인간에 대해 “부녀자만을 상대로 하거나 부녀자끼리만 주고받은 편지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인간은 특정 계층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의 공유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중심내용은 ‘② 인간은 특정 계층과 성별에 관계없이 이용된 의사소통 수단이었다.’가 적절하다.

비문학 지문의 발문이 긍정인 경우 대부분 중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며, 중심 내용은 서두 또는 말미에 주로 온다. 중심 내용은 지문 전체의 내용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하며 너무 지엽적이거나 광범위하다면 정답이 될 수 없다. (비문학 독해 비결, 중심내용 찾기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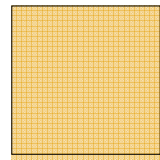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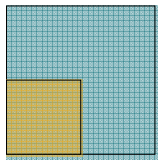
중심내용 정답의 원칙



선지 = 지문



선지 $\supset$ 지문, 지문 $\supset$ 선지



선지 $\neq$ 지문

중심 내용 찾기와 관련된 독해 비결은

http://public.zianedu.com/front/TeacherViewBBS?mnk=120&parent_mnk=353&nvt=1&bbsmasterkey=10023&IBBSKey=96686&nCustomKey=0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제범위: 비문학 - 중심내용 찾기)

3.

[정답] ③

[해설] ‘-면서’는 두 동작의 동시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③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면서 (어미)

「1」두 가지 이상의 움직임이나 사태 따위가 동시에 겹쳐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2」두 가지 이상의 움직임이나 사태가 서로 맞서는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출제범위: 작문 - 고쳐 쓰기)

4.

[정답] ③

[해설] 통일성은 글이 하나의 주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글의 주제와 상관없는 내용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문을 보면, 지문의 내용은 수학 선생님 덕분에 글의 화자가 수학을 좋아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은 이와 관련이 없는 '수학 선생님의 아들'에 대한 내용이므로 글의 통일성을 해친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 된다.

(출제범위: 작문 - 내용 조직)

5.

[정답] ②

[해설] (가)는 정철의 시조로 충신연주지사에게 속하는 시조이다. (나)는 임제의 한시 무어별(無語別)이다. (가)의 시적 화자는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달'을 만들어 임 계신 곳에 비추어 보겠다고 말한다. 이에 반해 (나)의 '아가씨'는 남이 부끄러워 말도 못하고 집에 돌아와 문을 닫고 눈물을 흘린다. 즉 (가)의 화자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나)의 '아가씨'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따라서 두 시를 적절히 이해한 것은 ②이다.

[오답 해설]

① 장천은 임이 머무르는 공간이 아니고, 시적 화자가 장천을 통해 임에게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공간이다.

③ (나)의 '아리따운 아가씨'는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며, 관찰하는 대상이다.

④ (나)에서 '달'은 임에게 마음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아니다.

(출제범위: 문학 - 고전 문학)

6.

[정답] ④

[해설] ㉠에서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한다는 데서, 시적 화자가 지난 때를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는 행위를 통해 그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해설]

① 대합실의 상황은 안온하지 않다.

② 색채 이미지가 대조적이지만 눈 오는 겨울 풍경을 서정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③ 무례한 행동을 묘사하지는 않았다.

(출제범위: 문학 - 현대시 - 박재구, <사평역에서>)

7.

[정답] ④

[해설] 장인과 소작인들 사이의 뒷거래 장면을 묘사하는 부분은 없으며, 다만 마름인 장인에게 돈도 먹고 술도 먹고 해야 소작을 할 수 있다는 내용만 제시되어 있다.

[오답 해설]

① “생김 생기길 호박개 같아야”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장인님’, ‘장인께’, ‘욕필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사위에게 이 자식 저 자식하고 부르거나, 동네 사람들에게 욕하는 것, 마름으로 사람들에게 뒷돈을 받는 등의 여러 정황을 거론하며 장인의 됄됨이가 마땅치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출제범위: 문학 - 현대 소설 - 김유정, <봄봄>)

8.

[정답] ①

[해설] ‘보기’에서 ‘공동 의사 결정 과정’라는 데서,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적절한 한자는 ‘협상(協商)’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단어의 뜻

① 협상(協商): 「1」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결정을 하기 위하여 여럿이 서로 의논함.

「2」『정치』둘 이상의 나라가 통첩(通牒), 서한(書翰) 따위의 외교 문서를 교환하여 어떤 일에 대하여 약속하는 일. 또는 그런 약속 조약. 조약과 달리 국가 원수나 국회의 비준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주로 특정 지역에서 친화적 국제 관계를 맺을 때에 행한다.

② 협조(協助): 힘을 보태어 도움.

③ 협주(協奏): 『음악』, 독주 악기와 관현악이 합주하면서 독주 악기의 기교가 돋보이게 연주함. 또는 그런 연주.

④ 협찬(協贊): 「1」힘을 합하여 도움. 「2」어떤 일 따위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줌.

(출제범위: 한자와 한자어)

9.

[정답] ①

[해설] 초고를 고치는 것이므로 ‘교정(校訂)’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②에 알맞은 한자는 ‘교차(交叉: 서로 엇갈리거나 마주침)’이다.

③에 알맞은 한자는 ‘결재(決裁: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함)’이다. 전자 문서에 결재를 받아야 합격자를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④에 알맞은 한자는 ‘재고(再考: 어떤 일이나 문제 따위에 대하여 다시 생각함)’이다. 그 계획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단어의 뜻

① 교정(校訂): 남의 문장 또는 출판물의 잘못된 글자나 글귀 따위를 바르게 고침.

② 교차(交叉): 벼슬아치를 번갈아 임명함.

③ 결제(決濟): 「1」일을 처리하여 끝을 냄. 「2」『경제』증권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를 끝맺는 일.

④ 제고(提高): 쳐들어 높임. 예: 생산성의 제고/능률의 제고

(출제범위: 한자와 한자어)

10.

[정답] ②

[해설] ‘애매어의 오류’는 언어를 잘못 사용하거나 이해하는 데서 발생하는 오류를 말한다. 선지에서 부패하기 쉬운 것들은 냉동 보관해야 한다. 에서 ‘부패’는 ‘단백질이나 지방 따위의 유기물이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 분해되는 과정’ 즉, 썩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세상은 부패하기 쉽다’에서 ‘부패’는 ‘정치, 사상, 의식 따위가 타락함’은 의미한다. 따라서 ‘고로 세상은 냉동 보관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애매어의 오류의 예에 해당한다.

오류의 유형은 최근 계속 출제되고 있는 문제이므로 예시와 함께 이론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다.
지안 국어 33쪽

① 애매어의 오류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단어의 의미를 명백히 분리하여 파악하지 않고 혼동함으로써 생기는 오류

예 죄인은 감옥에 간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 하셨어. 그러나 모든 인간은 감옥에 가요.

(출제범위: 비문학 - 오류의 유형)

11.

[정답] ③

[해설] ③에서 목적을 지닌 인생은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마라톤의 예를 끌어와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지문에서 문학이 구축하는 세계는 실제 생활과 다르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건축가가 집을 짓는 내용을 끌어와 설명하는 것과 같은 설명방식이다.

▶ 설명 방식

지안국어 17쪽

① 서사, 과정, 인과

구분	서사	과정	인과
공통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중시함		
차이점	'무엇'에 중점	'어떻게'에 중점	'왜'에 중점

② 분석, 묘사

- 분석 : 사물이나 개념을 하나하나의 작은 구성 요소로 나누는 방법
- 묘사 : 어떤 대상을 눈으로 보듯 생생하게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도록 표현하는 방법

③ 분류, 예시, 정의

- 분류 : 어떤 대상이나 개념을 공통적인 특성에 근거하여 구분하는 방법
- 예시 : 어떤 원리나 법칙이나 개념의 속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방법
- 정의 : 어떤 대상 또는 사물의 범위를 규정하거나, 그것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방법

④ 비교, 대조, 유추

- 비교 :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물에 대해 그들의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방법. '비슷한 점'에 중점
- 대조 :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물에 대해 그들의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방법. '차이점'에 중점
- 유추 : 일종의 확장된 비교.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을 잘 알려진 것을 통해 설명하고자 할 때 사용

⑤ 논증

- 논증 : 여러 가지 명제를 근거로 하여 어느 하나의 결론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
- 목적 :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내려진 결론이 참이라는 사실을 독자에게 설득하는 것

(출제범위: 비문학 - 서술 방식)

12.

[정답] ②

[해설] 고갱이 인상주의를 비판하며, 더 단순하고 더 솔직한 어떤 것을 열망했으므로 ②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지문에서 “이 세 사람의 화가가 모색했던 제각각의 해법은 세 가지 현대 미술 운동의 이념적 바탕이 되었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지문에서 반 고흐가 “인상주의가 시각적 인상에만 집착하여 빛과 색의 광학적 성질만을 탐구한 나머지 미술의 강렬한 정열을 상실하게 될 위험에 처했다”고 느꼈다고 하였다. 따라서 적절한 선지이다.

④ 세잔은 인상주의를 비판하며 “사라졌다고 느낀 것은 균형과 질서의 감각이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출제범위: 비문학 - 내용 일치)

13.

[정답] ②

[해설] ②의 ‘제-’는 접두사이므로 뒤의 ‘3장’에 붙여 써야 한다.

제(第): ((대다수 한자어 수사 앞에 붙어)) ‘그 숫자에 해당되는 차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제일/제이/제삼.

띄어쓰기는 난도가 있는 문제이므로 기출 문제 및 어문 규정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한다. (추후 띄어쓰기 특강 제공 예정. http://public.zianedu.com/front/TeacherViewMain?mnk=120&parent_mnk=353)

[오답해설]

① ‘좋은 걸’의 ‘걸(것을)’은 의존 명사이므로 관형사형 ‘ㄴ’ 뒤에서 띄어 써야 한다.

③ 시간을 의미하는 ‘지’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④ ‘차’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차’의 경우 접미사 ‘-차’와 구별하여야 한다.

차(次): 의존명사

((일정한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구 뒤에 쓰여))주기나 경과의 해당 시기를 나타내는 말.

¶ 입사 3년 차/임신 8주 차/결혼 10년 차에 내 집을 장만했다.

-차12(次): 접미사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목적’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연구차/인사차/사업차

(출제범위: 문법-띄어쓰기)

14.

[정답] ①

[해설] 이 문제는 음운 변동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① ‘깁는’이 [깁는]으로 소리 나므로 ‘ㄱ’이 ‘ㅇ’으로 바뀐 교체에 해당한다.

깁는 → 깁는 (음절 끝소리 규칙) → 깁는 (비음동화)

[오답해설]

② ‘깁아’가 [깁아]로 소리 나는 것은 연음 현상 때문이다. 초성에 오는 ‘ㅇ’은 소리가 없으므로 음운이 아니다. 따라서 탈락이 아니다.

③ ‘깁고’가 [깁고]로 소리 나므로 교체에 해당한다.

깁고 → 깁고 (음절 끝소리 규칙) → 깁고 (된소리되기)

④ ‘깁지’가 [깁지]로 소리 나므로 교체에 해당한다.

깁지 → 깁지 (음절 끝소리 규칙) → 깁지 (된소리되기)

(출제범위: 문법 - 음운론)

15.

[정답] ③

[해설] 포스트휴먼이 인간의 신체적 결함을 다양한 과학 기술을 이용해 보완한다는 것은 지문을 통해 알 수 있다.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다는 내용은 지문을 통해 추론할 수 없다. 따라서 ③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①은 1문단에서 추론할 수 있다. “철학자 보스트롬은 건강~제안하였다”

②은 2문단에서 추론할 수 있다. 포스트휴먼은 높은 지능을 가지고 질병에 시달리지 않으며 노화가 제거되고, 심리 상태도 마음대로 조절하는 등 현재의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존재가 어떤 존재일지 지금은 정확하게 상상하기 어렵지만 현재 인간의 상태로 접근할 수 없는 새로운 신체나 의식 상태에 놓여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에서 알 수 있듯 그 형태가 어떠한지는 알 수 없다. 또 그러한 예시가 3문단에 나와 있다.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속의 정보 패턴)

④ 미래의 포스트휴먼은 ‘공학, 신경약리학, 항노화술...’ 등의 영향을 받는 존재이며, 인공지능일 수도 있고 슈퍼컴퓨터 안의 정보 패턴일 수도 있다고 하였으므로 현재의 인간보다 과학 기술 발전 양상에 따른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문학의 경우 지문이 길 경우 선지를 먼저 읽고 지문을 읽는 것이 유리하다.

‘비문학 독해 비결’ 기본 독해 전략 참고.

http://public.zianedu.com/front/TeacherViewBBS?mnk=120&parent_mnk=353&nvt=1&bbsmasterkey=10023&lBBSKey=96683&nCustomKey=0

(출제범위: 비문학 - 추론적 이해)

16.

[정답] ①

[해설] ‘크다/작다’의 경우 정도 반의어로 중간 항을 허용한다. 따라서 ‘크지도 작지도 않은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①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출제범위: 문법- 의미론)

17.

[정답] ④

[해설] 이 문제는 <용비어천가> 제13장의 문법 사항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술북리’에서 ‘이(=사람)’ 뒤에서 주격조사는 ‘∅’로 나타낸다. ‘㉡뵤아시니’에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시-’이다. ‘재촉하다’의 옛말은 ‘뵤아다’이다. ‘㉢하디’의 해석이 ‘많지만’이므로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가 아니다. ‘㉣알외시니’는 ‘알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외-’는 ‘알다’에 결합된 사동 접미사로 볼 수 있다.

(출제범위: 문법 - 고전 문법)

18.

[정답] ③

[해설] ‘백제는 만월 신라는 반달’이라는 글귀가 적중하고 나서부터, “반달은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는 뜻으로 쓰이며, 그러한 뜻을 담아 송편도 반달 모양의 떡으로 빚었다고 한다”라고 글에 나와 있다. 따라서 “③ 신라인들은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송편을 빚었다.”가 정답으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에서 점술가의 예언은 우리나라에서 ‘반달’ 모양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지, 신라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② 지문에서 중국의 월병은 한국과 달리 보름달 모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한국에서 지역의 단합을 위해 수천 명분의 비빔밥을 만들듯이’ 중국에서도 월병을 나누어 먹는다고 했을뿐, 한국의 비빔밥을 본떠 월병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았다.

④ 지문에서 “점차 제례 음식으로서 위상을 잃었지만”이라고 월병을 설명하였으므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내용일치 문제의 경우, 지문의 길이가 길다면 선지를 먼저 읽고 문제를 푸는 것이 유리하고 지문의 길이가 짧다면 지문을 먼저 읽고 선지를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다. (비문학 독해 비결 참고: http://public.zianedu.com/front/TeacherViewBBS?mnk=120&parent_mnk=353&bbsmasterkey=10023)

(출제범위: 비문학 - 내용 일치)

19.

[정답] ③

[해설] 해당 부분은 성진이 ‘양소유’로 지내던 꿈에서 깨는 장면이다. ㉠은 성진이 꿈을 꾸기 전 사부와 10년을 같이 살던 일을 말하므로 가장 과거에 해당한다. 또, ㉡과 ㉢은 성진이 ‘양소유’가 되어 꿈을 꾸는 부분에 해당하므로 ㉠ 뒤에 벌어지는 과거에 해당한다. 그 중 ㉢은 양소유가 부모 슬하를 떠나 토번을 정벌하던 때 사부를 꿈에서 만난 것이므로, ㉡ 뒤에 이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은 현재에 해당하므로 제일 마지막에 온다.

즉, ‘㉠-㉡-㉢-㉣’ 순이 적절하다.

(출제범위: 문학 - 고전 문학 - 구운몽)

20.

[정답] ①

[해설] 이 문제는 ‘구운몽’을 읽고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하였는지 묻는 문제이다.

[오답해설] 지문에서 “소유가 전에 토번을 정벌할 때 꿈에서 동정 용궁에 가서 잔치하고 돌아오는 길에 남악에 가서 놀았는데 한 화상이 법좌에 앉아서 불경을 강론하더니 노부께서 바로 그 노화상이냐?”라고 하였으므로 ①이 적절하다.

② ‘승상’이 꿈에서 ‘사부’가 손 가운데 돌 지팡이를 들어 난간을 두어 번 치니 그 때서야 꿈에서 깨게 된다. 따라서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③ ‘승상’은

④ 능파 낭자와 어울려 놀던 죄를 징벌한 이가 ‘중’이라고 여기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으며, ‘중’을 남악에서 꾸는 꿈에 등장한 ‘노화상’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출제범위: 문학 - 고전 문학 - 구운몽)